

그리스도인의 희망

살전 4:13-18

벌써 12 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었고 보름 정도만 있으면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한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인간도 그 만물의 법칙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미련 없이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에는 그 나름대로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많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의 아주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어서 태어나게 되는 참으로 귀중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마음으로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은 사람이라 해도 보내야 하고, 정말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냥저냥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갈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해서 방황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라’고 하면서 ‘그 누가 죽었을 때에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살전 4:13)’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너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라(살전 4:18)’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래 전, 미국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언은 열세 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라이언 소년은 안타깝게도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밝은 얼굴로 학교생활을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5년을 더 살다가 결국 18 세에 죽었습니다. 라이언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네게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버지처럼 저에게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라이언의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죽는 것은 필연인데, 그리고 언젠가는 다 가야 할 길이라면,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 못마땅하면, 너희는 너희가 섬길 다른 신을 선택하라(수 24:14-15)”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여호와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수 24:21)’고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한다.”고 다짐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이 세상에서 편히 살자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겠습니까? 또는 세상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깝고 사람들에게 무슨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와 세상에 한 다리씩 걸쳐놓은 채, 어정쩡하게 믿음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는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누리게 될 세상 즐거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어느 것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하루빨리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니와, 항상 언제든지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저 교회마당에 굴러다니는 낙엽들처럼, 어떤 삶의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해의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마지막이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마 25:13)”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젊거나 건강하다고 해서 방심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배를 타고서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배가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배 갑판에 누워서 신음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노신사만은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찬송을 조용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노인께서는 전혀 두렵지 않으신가보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예, 두렵지 않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다시 묻기를 “어떤 연유로 해서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는지 좀 말씀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흔쾌히 승낙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큰 딸은 어렸을 적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갔고, 둘째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배가 무사히 도착하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걱정 없노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갈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게으름을 피우다가 큰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